

Atmosphere VII.

산만하고 분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1. 집중

집중이 주는 힘이 있다. 집중할 때 공기도 변한다. 집중이란 한 가지 일에 힘을 쏟아붓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법칙은, 모일 때 힘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드셨다. 대표적인 예가 태양빛을 모으는 돋보기이다. 돋보기의 볼록 렌즈는 빛을 한 곳으로 모아서 그 힘으로 물건을 태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든다. 혼자보다 여럿이 함께 힘을 합한 것이 강하다. 그 표본은 바로 ‘하나님’ 자체이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만물의 중심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있다. 모든 생명의 힘이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 ‘에하드(하나)’로 표현된다. 에하드란, 다른 모든 객체가 전체적인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각각 그 모양과 성분이 다르지만, 그 다양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르지만,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가족 구성원의 하나됨도 마찬가지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르시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분’이시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에하드’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신앙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한다. 신앙은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 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집중하도록 만드셨다. 이 집중의 시간이 바로 구별된 ‘안식일’이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안식의 개념은 무엇인가? ‘멈춤’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서 창조주가 누구인지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은 공급이다. 회복이다. 복잡했던 영역의 정렬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단순히 주일예배를 지킨다는 개념이 아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시간이다. 내가 움직이고 있는 인생의 방향성의 좌표를 점검하는 시간이다.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내 모든 삶의 생명의 원동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간이다.

2. 집중하지 못하는 세상.

현대 사회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이 ‘디지털로 대변되는 기술’이다.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영역을 확장해주었다. 시, 공간에 갇혀 있는 인간의 활동영역을 넓혀주었다. 과거에는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갔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체가 되어 무엇이든지 탐구하고 경험해 볼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인간이 원하는 모든 정보가 ‘데이터’로 축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내가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여 데이터를 얻었다면, 지금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간접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데이터의 양에 비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한계치에 있다는 것이다. 목마라든 내가 원하는 양 만큼의 물을 먹으면 된다. 문제는 물이 쏟아지는 수도꼭지 밸브를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갈증을 해소할 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내 몸을 적시고도 남을 만큼의 데이터가 일방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나의 의도와 상관없는 강요를 받고있다. 쏟아지는 데이터를 정리하기도 전에 처리하기 버거울 정도의 데이터가 쏟아진다.

현대사회의 환경이 주는 결과는 ‘분주함’과 ‘산만함’이다. 한 마디로 ‘집중’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공기는 ‘신앙’에도 나타난다. 오늘날의 신앙은 집중하기 어렵다. 예배는 무엇인가? ‘집중’과 ‘몰입’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런데 현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분된 시간이 아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삶의 연속성일 뿐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다. 잠시 목이 말라서 들리는 편의점과 같다. 당장 목이 마르니 쉽게 물을 살 수 있는 편의점에 들러서, 물을 사는 것과 같다.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안으로 몰입하는 일이 바로 예배이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미 시간에 노예가 되어버렸다. 항상 쫓겨 산다. 할 일은 많은데 언제나 시간은 부족하다. 그래서 삶은 언제나 정돈되어 있지 않고 ‘분주하고 산만하다’ 한국처럼 바쁜 나라는 더 심각하다. 또한 한국에 발달된 IT환경들이 이 모든 환경을 더 부추기고 있다.

3.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

현대 사회안에 있는 분주함과 산만함은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것이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무해지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척도는 무엇인가? 진정한 믿음생활을 시작하려면 방법은 간단하다.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면 된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 그 시간도 집중과 몰입을 할 환경이 아니다. 1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동안 어떤 영적 경험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마음으로 또 일주일을 살아간다. 이런 구조에서 신앙은 절대로 좋아질 수 없다. 몰입과 집중이 없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 없다.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 결국 물거품이 되며 허무한 일이 되는 것이다.

4. 영적원리

(1) 집중 - 예수님의 집중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집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며 집중되는 곳에 있었다. 삭개오를 주목하셨다. 배고픈 자들, 병든 자들을 주목하셨다. 수가성의 여인을 집중하셨다. 간음해서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기 일보직전의 여인을 주목하셨다. 주목했다는 것은 ‘마음이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향유욕함을 깨는 여인을 집중하셨다.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작은 헌금에 집중하셨다.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난 곳은 어디인가? 예수님의 마음이 집중된 곳이다. 하늘문이 열리는 원리는 예수님처럼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베드로를 보라. 기도를 하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집중했다. 그 날 베드로의 손을 통해 그는 걸을 수 있는 기적을 경험했다. 어떤 원리인가? 왜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기적이 나타났는가? 예수님처럼 마음을 집중한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자의 마음에 집중한 것이다. 이런 영적 몰입이 하늘문을 열게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된다.

(2) 집중은 공기를 변화 시킨다 - 잘못된 집중의 예

ㄱ. 사울의 마음

질투의 마음으로 다윗을 집중했다. 사울의 공기가 죽음과 파괴의 공기로 변했다.

ㄴ. 가인의 마음

아벨의 제사를 질투의 마음으로 집중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상황에 집중했고, 그 마음으로 아벨을 집중했다. 결국 가인을 죽이는 칼을 움켜쥔다.

ㄷ. 바리새인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는 마음으로 집중했다. 그들의 집중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칼을 움켜쥐게 된다.

(3)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 Attention and Grab

집중의 결과는 내가 집중한 것을 움켜쥐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집중한 것을 붙잡게 될 때 기적이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집중(‘attention’) 하셨다. 그리고 집중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붙잡으셨다(‘Grab’).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도움이 나타났다.

집중은 마음이 모아지는 것이다. 다른 말로 ‘중심’이라 말한다. ‘중심’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Grab’). 그 순간 하늘이 움직인다. “내가 너를 돕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린다. 그리고 하늘의 자원은 움직인다.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은, 내가 이 땅에서 ‘붙잡을 때’이다. 따라서 ‘Grab’은 바로 믿음이다

(4) 혈루병 여인

[마가복음 5:27-30]

27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여 들어와서는, 예수 옷에 손을 대었다.

28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를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29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30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예수님을 집중한다. 자신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초점을 둔다. 이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 모아져있다. 예수님이 나타난 그 순간,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움켜쥔다. '하늘'이 움직인다. 치유 되었다. 예수님은 혈루병 여인의 붙잡음('Grab')을 영적으로 아셨다.

***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을 붙잡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ㄱ. 집중 (attention)의 훈련을 하라 (시편 27:4)

ㄴ. 붙잡음의 훈련(Grab) : 믿음의 훈련을 하라. 확신있게 움켜쥘라. 하늘이 움직인다.

(5) 내가 무엇을 '집중(attention)' 하느냐에 따라, '움켜쥔(Grab)'의 상태가 강해진다.

(6) '마음'을 경작하라.

천국의 마음, 팔복의 마음으로 경작하면 하늘의 뜻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7) 마음의 경작 - 실천과제

ㄱ. 말씀으로 집중하라 (경작)

ㄴ. 기도로 집중하라 (경작)

ㄷ. 성도의 교제로 마음을 경작하라 (삶)

마음의 경작은 하늘의 뜻을 '집중(attention)'하는 순간이 생겨난다. 그 순간을 붙잡으라. 하늘이 움직이며, 모든 상황은 변할 것이다.